

※ 미사 안내 ※			 동백성마리아성당 (우)1699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로 151 http://db.casuwon.or.kr	주임신부 김영빈(요한세례자) 총 회 장 이학구(빈첸시오) 연령회장 박희숙(올리엠타) 010-6288-4311 사 무 실 031-286-1175 F A X 031-286-1141
평일	월	06:30		
	화 / 목	19:30		
	수 / 금	10:00		
	첫토 (성모산심)	10:00		
주일	토	청 년 19:30		
	일	교 중 10:30		
		어린이 16:00		
		청소년 19:00		



+ 미사, 전례, 성사

■ 초등부 주일학교 교리방학 및 방학미사

- 일시 : 7월 13일(주일) 16:00 어린이 미사
- 방학 기간 : 7월 20일(주일) ~ 8월 31일(주일)
- ※ 교리방학 기간 중에도 어린이 미사는 있습니다.

+ 피정, 교육, 행사, 기타

■ 2025년 초/중/고 주일학교 여름신앙캠프 안내

주 일 학 교	일 정	장 소	참 가 비	QR신청
초 등 부	저 학 년 (유,부,1,2학년)	7/19(토) 10:00-15:00	성 당	1만원
	고 학 년 (3,4,5,6학년)	8/4(월)~6(수) (2박 3일)	계성푸른누리 수련원(가평)	8만원
중고등부	8/4(월)~6(수) (2박 3일)	계성푸른누리 수련원(가평)	8만원	

- 접수마감 : 7/13(주일) 까지
구글폼 및 초중고 미사 후 접수
- 문 의 : 초등부교감 010-8972-2571
중고등부교감 010-9261-7244
- 기 타 : 한 가정 세 자녀 신청 시 셋째 자녀는 무료

■ 청소년 여름 신앙 캠프 간식비 후원 안내

- 초·중·고 주일학교 여름 신앙 캠프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간식비를 후원 받습니다. (접수처 : 본당 사무실)
- 교우분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 바랍니다.

■ 8월 첫 주간 전례 안내

- 성모 산심 미사 : 8월 2일(토) 10:00(매월 첫 토)
- 성시간 · 성가정 미사 : 8월 7일(목) 19:30

■ 8월 환자 영성체는 쉽니다.

■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안내

- 일시 : 8/15(금) 오전 10:30 / 저녁 19:30

■ 주일미사 차량 이용 안내

- 주일미사 참례 시 차량 함께 타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 백현중학교 주차장 7월 사용일자: 7/20 (09:00~17:00)
※ 연락처 남겨 주시고 주차 이용 시간 엄수 바랍니다.

백현중학교 주차장 사용일자 7/20, 8/17, 9/21, 10/12, 11/16, 12/21

■ 제29차 교구 성경 잔치 안내

- 일시 및 장소 : 10월 19일(주일) 09:30~16:30 / 효명중학교
- 범위 : 예언서(이사야서~말라키서)
- 내용 : 성경 경시대회, 온라인 성경 이어쓰기, 말씀한마당, 청소년UCC, 성경작품(그림, 도자기, 붓글씨, 자수, 퀼트, 사진, 공예품 등)
- 접수 : 8월 3(주일) ~ 8월 24일(주일)까지
- 문의 : 교육분과(010-5765-1747)
- ※ 성경(신약, 구약, 산구약)필사 완필 하신 분은 필사본 사무실에 제출 바랍니다.

■ 월례회의 및 단체 회합 안내

- 구 리 아 7/13(일) 09:00
- 성 소 분 과 7/17(목) 미사후
- 청소년분과 7/13(일) 17:00
- 빈 첸 시 오 7/17(목) 미사후
- 성경봉사자회 7/15(화) 미사후
- 재정시설분과 7/20(일) 15:00
- 해설독서단 7/17(목) 미사후
- 초등복사단 7/20(일) 17:00

■ 교중 미사 전례 및 청소 봉사

전 려		청 소	
7/13 (일)	7지역(3)	7/12 (토)	6지역
7/20 (일)	8지역(1)	7/19 (토)	7지역

- 지난주 봉사해 주신 교우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전입 교우

♥ 환영합니다 ♥

성 명	현주소	이전성당
김승기	미카엘	죽전대로 556번길 수원/동백성요셉

- 전입 교우는 주임 신부님과 면담이 있습니다.

■ 전출 교우

♥ 안녕히 가십시오 ♥

성 명	이전 주소	가시는 곳
김영식	마니로	경남 2800 수원/세마
김영호	바오로	모아 1203 서울/성산2동

■ 우리은행 교무금 통장에 입금하신 분 찾습니다.

- 7월 3일(목) '교무금2회분'으로 납부하신 교우분은
납부하신 교우분께서는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교무금 계좌 : 우리은행 1005-601-858011 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책정자명/세례명 기입)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루카 10,27)

+ 우리들의 정성 [6월 30일(월) ~ 7월 6일(주일)]

연중 제14주일		4,275,800원	사제양성	1,458,000원	주일미사 참례자수	875명
강 현 레 아	김종선 베 레 나	송미선 안 젤 라	이영숙 마 리 아	주 지 탁 스테 파 노		
고건영 마 리 아	김진우 크리스도폴	송재준 암브로시오	이영화 요 셉	진 용 철 사 도 요 한		
고길만 미 카 엘	김태환 마 리 아	신동은 마 틸 다	이옥형 데 레 사	차 경 숙 마 리 아		
고옥희 크리스티나	김학성 도 마	신영균 안 드 레 아	이윤진 다 니 엘 라	최 명 주 아 네 스		
권재경 야 곱	맹주연 소 피 아	심규석 요 한	이은미 모 니 카	최영필 요 아 김		
김규월 가 타 리 나	문용옥 세 시 리 아	안도영 프란치스코	이정란 루 치 아	최영화 빈 센 트		
김미성 루 시 아	문장용 베 드 로	안한철 바 오 로	이정희 마 리 아	최영희 카 타 리 나		
김상모 베 드 로	민승기 요 한	오은영 마리아막달레나	이준석	최한욱 마 태 오		
김성욱 안또니오	박동원	우경일 다 니 엘	이준수 프란치스코	하서호 요한에우데스		
김세연 베로니카	박혜정 에스 테 르	윤영찬 스테 파 노	이혜정 아나다시아	한 상 범 다 니 엘		
김수정 그 라 시 아	배동춘 대건안드레아	이건욱 시 문	이효경 켄 마	한철근 아 오 스 딩		
김재우 라 파 엘	백영식 베 드 로	이경순 데 레 사	임완일 베 드 로	허규현 테오도로		
교 무 금 6,530,000원	서영재 모 니 카	이동만 안 드 레 아	장덕자 세 시 리 아	홍승리 페 트 라		
	서홍규 스테 파 노	이명은 베로니카	장진수 베 드 로	홍은주 베네딕다		
	서희정 안 젤 라	이미혜 루 시 아	정승은 베로니카	황찬성 요 셉		
	성영석 이냐시오	이수형	정찬영 안 젤 라	황현재 도미니교		
	손원수 비 오	이순자 데 레 사	조유정 마 리 아	황호경 리 디 아		
여름신앙캠프 (간식비후원)	김지은 마 리 아	20,000	김학성 도 마	100,000	전 병 숙 베로니카	50,000
	김철수 스테 파 노	50,000	우미자 엘리사벳	50,000	최영필 요 아 김	50,000
은총반간식비후원	김경옥 소화데레사	50,000				
제 대 꽃	백승조 유스티나	50,000	전 병 숙 베로니카	50,000		
성 소 후 원 금	익 명	10,000				
사회복지후원금	김미성 루 시 아	20,000				
건 축 헌 금	주지탁 스테 파 노	50,000				
본당 부채 현황(교구 차입금·토지)		금주 토지·건축 봉헌금		본당 부채상환 적립금		
1,000,000,000원		50,000원		23,070,000원		

♡ 봉헌해 주신 신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간지 교리 (출처: 《성사》, CBCK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 고해성사의 근거는 무엇이고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고해성사는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사도들에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셨습니다.

고해성사는 죄인들에게 잃어버린 은총을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는 성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 주님께 받은 이 권한을 행사하는 형태는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서간을 통하여 초대 교회가 고해성사를 어떻게 드렸는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중죄를 지은 이들은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한 뒤 교회로부터 사죄를 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2코린 5.7-10 참조). 처음 수 세기 동안은 세례를 받은 다음 특별한 대죄 (우상 숭배, 살인, 간통죄 등)를 지었을 경우에 매우 엄중한 징계를 거쳤습니다. 곧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기 전에 여러 해 동안 공적 보속을 해야만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7세기 아일랜드 선교사들이 동방 수도회 전통에서 영향을 받은 '사적인' 속죄의 절차를 유럽 대륙에 전하였습니다. 이후 고해성사는 참회자와 사제 사이에 비밀리에 행해지게 되었고, 일생에 한 번만 받던 것도 자주 반복하여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죄와 소죄를 구분하여 용서받는 관습들도 단 한 번의 성사 거행으로 모두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고해성사가 오늘날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